





입선 • 공직부문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



‘딸랑~ 딸랑~ 딸랑~’

누구에게나 과거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기차 경적소리, 함박눈이 내리는 한겨울 저녁에 골목 한편에서 울려 퍼지는 목청 좋은 찹쌀떡 장수의 리듬감 있는 목소리, 언제나 기다려지는 학교 쉬는 시간 종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빵튀기 가게의 ‘뽕이요~’ 소리…….

그 중에서도 나에게만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매일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작은 트럭에 두부를 가득 싣고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던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이다.

1993년 늦은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일찍 마치고 동네 친구들과 과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어둑해질



즈음 집에 들어가니 저녁 준비를 하던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다.

“저 앞에 두부아저씨 오셨으니까 두부 한 모 사오고, 오는 길에 계란도 사와.”

나는 오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받아 들고 집 앞 아파트 단지 도로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두부 트럭으로 향했다. 트럭 주변에는 종소리를 듣고 두부를 사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모여 계셨다. 아저씨는 수완이 좋아 동네에서 오랜 기간 장사를 하면서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주민들과 집안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내가 심부름을 갈 때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시곤 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두부 하나 주세요,”

“길중이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

때맞춰 물려든 손님에 아저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다. 두부 판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두부를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봉지에 넣어 건네 주고 돈을 받아 주섬주섬 거스름돈을 계산하던 아저씨의 이마에는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따끈따끈한 두부와 함께 거스름돈을 받은 후, 손님이 많아 거스름돈을

확인해 볼 겨를조차 없이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나섰다. 계란을 사러 슈퍼로 가는 길에서야 한 손에 꼭 쥐고 있던 돈을 세어보았다.

오천 원을 내고 칠백 원짜리 두부를 샀으니 내 손에는 사천 삼백 원이 들려 있어야 할 터. 그런데 천 원짜리 지폐 사이에 오천 원짜리가 한 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어두운 저녁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여 급하게 돈을 꺼내다 보니 오천 원짜리가 섞여들어간 모양이었다. 난 뿔 듯이 기뻐다. 20여 년 전 오천 원이면 어린 아이에게는 정말 큰돈이었다. 순간 머릿속에는 그동안 갖고 싶어 문방구 앞에서 물끄러미 구경만 하던 프라모델, 고무동력기, 장난감 권총 등이 떠올랐다. 계란을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께 자랑했다.

“엄마! 나 오천 원 벌었어!”

어리둥절해 하시던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무 말 없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시곤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방금 두부를 샀던 트럭이었다. 몰려들었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고,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던 아저씨는 남은 두부를 마저 팔아보고자 설 새 없이 종을 울리고 계셨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길중이 넌 방금 왔었는데 또 웬일이야? 아, 혹시 두부가 이상이 있었나요?”

“애가 심부름을 시켰더니 거스름돈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왔지 뭐예요. 천 원짜리 중에 오천 원짜리가 들어있어서 돌려드리러 왔어요. 넌 돈을 받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했어야지. 어서 사과드려.”

난 어머니 뒤에 숨어 쭈뼛쭈뼛 사과를 하였고, 자초지종을 듣고 난 아저씨는 크게 웃으시고는 괜찮다고 용돈 준 셈 치겠다 하시며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어코 돈을 돌려 드린 뒤에야 집으로 발길을 돌리셨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어머니는 시무룩해 있던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돈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야. 네가 만약 아까 오천 원을 아무 말 없이 가졌다면 아저씨가 매일 땀 흘려 열심히 두부를 팔아서 번 돈을 빼앗는 게 되는 거란다. 떳떳하지 못한 돈을 썼을 때 네 마음은 편했을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렴.”

말씀을 마치신 후 어머니는 내 축 처진 어깨를 두드리며 주머니에서 오천 원을 꺼내 내 손에 쥐어 주셨다. 하지만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 한동안

어머니를 쳐다볼 수도, 그 돈을 쓸 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 때의 일은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고, 국민학교 3학년이던 어린 아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였다. 또한 오랜 준비 끝에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소방공무원에 합격하여 공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소방서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밤을 새워 큰 불을 꺼보기도 하고, 실종자를 찾아 온 산을 헤매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집나온 소떼를 외양간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내가 원했던 직장이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보잘 것 없는 작은 도움을 드린 분들이 정말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 주실 때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참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던 여름날, 출동 방송이 들려왔다.

“○○1펌프, 별집제거 출동. ○○면 □□리 ◇◇모텔. 건물 2층 처마 밑에 큰 별집이 매달려 있는 상태.”

지난주에도 다녀왔던 곳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관할 지역은 지역 특성상 산지가 많아 별집이 자주 생기는 관계로 이렇게 갔던 곳을 또 가는 일



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익숙하게 보호복과 제거 장비를 챙기고 현장으로 출동해 보니, 벌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위치도 제거하기 쉽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리고 팀장님의 조언을 얻어 가까스로 제거할 수 있었다. 한여름에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잔뜩 긴장한 채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따가운 피부와 타는 목마름에 정신은 아득해져 갔다.

잠깐 쉬 후 ‘오늘도 한 건 했다’는 기쁨을 나누며 장비를 정리하던 그 때,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전에도 없었는데 이놈의 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원……. 가면서 이거라도 드세요.”

라며 모텔 주인아주머니께서 드링크제 한 상자를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만 받겠다며 극구 거절하였지만, 너무나 미안해서 안 받으면 내가 더 불편하니 제발 받아 달라며 떠밀 듯이 건네고 뛰어 들어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귀소 길에 올랐다. 귀소 중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상자 안에는 드링크제와 함께 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현금 10만원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팀장님께 보고 드렸다. 팀장님은 차를 돌려라고 지시하셨고, 모텔 앞에 도착한 후 내게 말씀하셨다.

“직집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돌려드리고 와.”

그 순간, 십여 년 전 어린 시절의 그 일이 떠올랐다. 비록 알고 받은 것은 아니었으나 돈을 보는 순간 잠시 망설였던 것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마 팀장님도 그 때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공직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소방 어린이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직접 돌려드리도록 지시하셨으리라.

나는 주인아주머니를 찾아가 음료와 봉투를 돌려드렸다.

“두 번씩이나 고생하셔서 냉면이나 한 그릇 하시라고 드린 건데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도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사장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대가를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별집이 또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환하게 미소 짓는 아주머니를 뒤로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년째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열이 펄펄 끓는 아기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고 나오는 길에 아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황급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시던 일, 화재가 났던 섬유공장 사장이 사무실로 찾아와 과일바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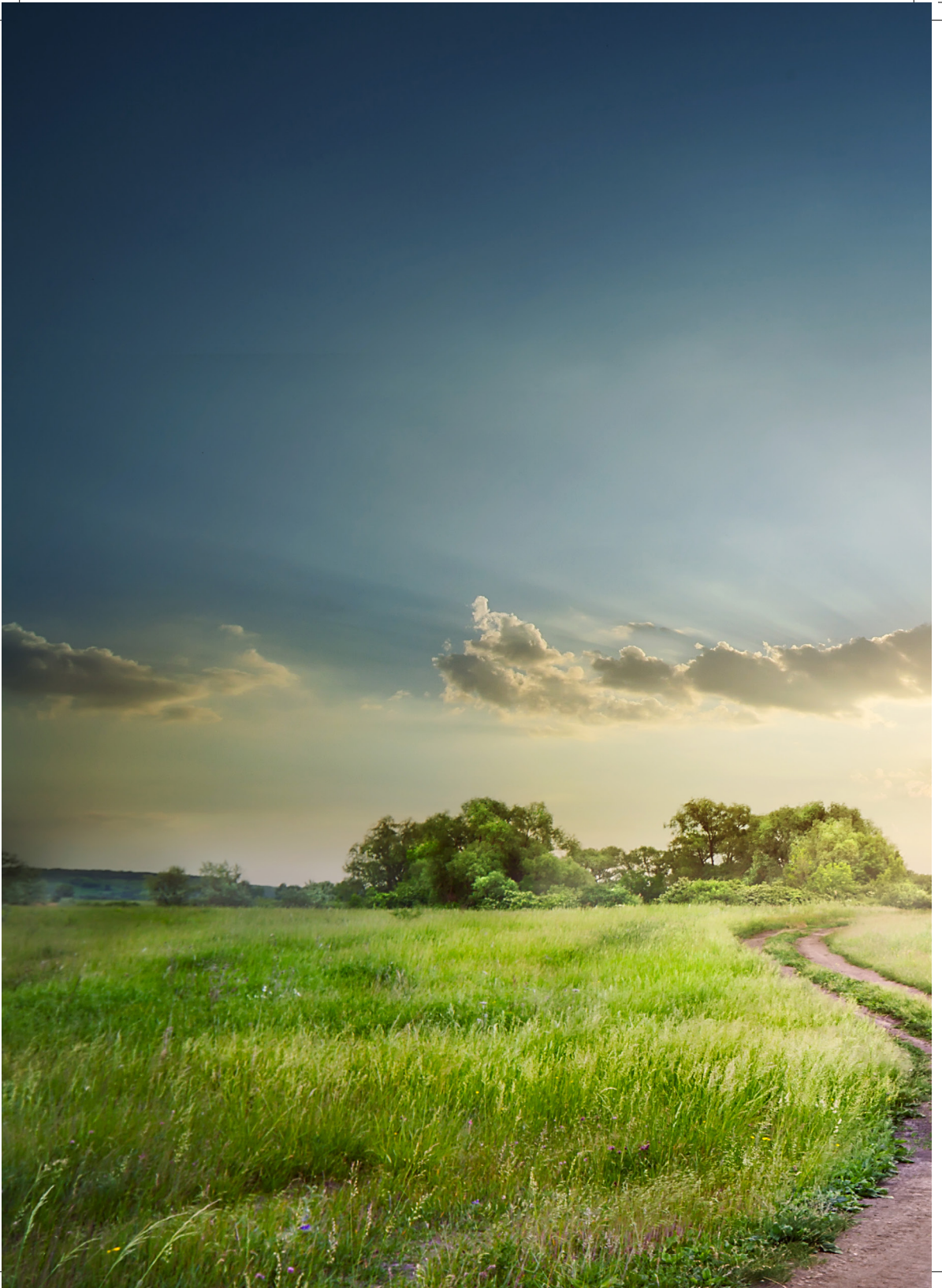


를 건네던 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러 갔을 때 “이거 얼마요?” 물으시며 주섬주섬 쌈짓돈을 쥐어주신 일, 잠시 현장을 떠나 계약부서의 물품구매 담당자로 근무하던 시절 모 업체 담당자가 계약을 따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려 한 일 등등…….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고마운 마음에 주는 음료수 하나도 못 받느냐며 서운해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을 드리면 다들 이해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기도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의 비리가 보도된다. 만일 조금만 잘못 생각한다면 ‘에이, 위엣 놈들은 저렇게 많이 해먹는데, 몇 폰 되지도 않는 거 좀 받으면 어때?’라고 자기합리화를 했을 지도 모르겠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던가. 큰 비리는 아주 작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용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어린 시절 선불리 취하려 한 거스름돈 오천 원의 교훈이, 이를 떠올리게 하는 두부가게 아저씨의 종소리가 내가 나아갈 공직 생활 속 유혹의 순간마다 뚜렷한 경종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본다. ♣





입선 • 공직부문



좁은 길



좁은 길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청렴(淸廉)’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장의 기념사에서는 물론 지시사항에서도 ‘청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실에서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청렴특강도 자주하고, 청렴유적지답사, 청렴마일리지제도, 청렴계시판 등도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요즘같이 이렇게 ‘청렴’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때면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기 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벌써 7년이 지났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성인들에게 워드, 엑셀 등 사무자동화 분야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저녁반 수강생 중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는 분이 있었다.

“요즘은 학교의 방과 후 강사가 대세잖아요. 여기 계시지 말고 그쪽으로 진로를 바꿔보는 것이 어떨겠어요. 선생님 실력이면은…….”



그녀의 미소가 고왔다. 처음에는 그저 흘러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학교에서 한번 근무해보는 것도 경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방과 후 강사 채용공고가 붙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오후에 40분씩, 3개의 반을 운영하였다. 티 없이 맑은 눈을 가진 1~2학년의 천진난만한 수업이 끝나면, 장난 끼 가득한 3~4학년이 컴퓨터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한참 혼을 빼놓았고, 이어 진지한 5~6학년이 ITQ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간을 재며 숨죽여 연습하였다.

수업 듣는 학생 수에 따라 강사의 급여가 계산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듣는 학생은 월 5만원, 3일 듣는 학생은 월 3만원을 학교에 내었고, 여기서 전기세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라는 명분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강사에게 지급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스스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배우러 온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온 터라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대다수는 부모님이 시켜서 배우러 온 경우가 많아 뭔가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필요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앞으로 평생 컴퓨터를 다루면서 즐거워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각 학년에 맞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 학

생들을 가르쳤다. 한편, 부모님과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은 급격히 늘어났다. 따라서 학생 수에 비례하여 내가 받는 보수도 점점 많아졌다.

1년 후, 재계약의 날이 다가왔다. 어느 날 교장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교장실로 갔더니, 연세가 많아 보이는 교장선생님은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매월 받아 가신 월급 내역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 가셨더라고요. 시간당 받은 금액으로 계산해보니 너무 많습니다. 10%를 떼고 지급했는데에도 워낙 많아서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는 20%를 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수월찮이 받아 가셨으니까, 현재 컴퓨터 5대가 고장이 나서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순간 나는 많이 당황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내 표정을 살피더니 내일까지 결정해서 방과 후 담당 선생님에게 의사를 전달해 달라며, 이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강사를 채용해야 되니 시간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은가.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의 횡포이자, 비정규직의 서러움이었다.



최초 계약 시, 매달 학생들에게 받은 수강료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에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서 고장이 난 기기의 수리를 미루고 미루다가 재계약을 앞둔 나에게 컴퓨터 5대의 본체를 새것으로 무상 교체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20%를 공제한다니……. 생각을 거듭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나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도 많아져서 해당 학교의 발전에도 일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대로 재계약이 이어지리라 여겼는데, 교장실 문을 닫고 나와 학교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 동안 내 생각들은 더 복잡하게 얽혀서 머리가 아팠다.

그날 저녁, 선배들을 만나 내가 당면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야, 이놈아! 니가 그래가지고 언제 사람이 되겠노?”

되레 나를 나무랐다.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준다며 술을 한잔 사라고 했다. 술자리에서는 사회생활의 기초부터 설명한다며 훈계하듯 앞에 앉은 선배가 말하기 시작했다.

“니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벌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앉은 다른 선배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이번에 20% 그대로 계약을 한다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컴퓨터도 새 거 사주고, 1년 동안 감사했다고 상품권을 넣어서 갈비라도 한 짝 사서 살짝 갖다드려라. 그래도 크게 손해 볼 건 없잖아. 그러면 내년엔 10%로 낮춰줄 거고, 컴퓨터 보수해달라는 소리는 안 할 거야.”

이어 앞에 선배가 말했다.

“너는 다 좋은데, 그런 걸 어찌 못하냐?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엔 껌죄에 걸린 거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은근슬쩍 명절 같은 날은 명절 핑계대고 선물을 조금씩 챙겨주는 거야. 앞으로는 그리해라 줌.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야.”

듣고 보니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같았다. 내가 그동안 좀 무심했었나 싶기도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선배들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다. 자칫 혼자 잘난 척 하는 인간으로 보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힐 것 같았다.



다음 날 오전, 서로 친분이 있던 방과 후 선생님에게 재계약 조건을 물어 봤더니 아무 문제없이 10%의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학생 수가 늘지 않아 호응을 얻지 못해서 별 다른 성과가 없었던 강사는 순탄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졌고, 많은 학생들도 모집했고 인기를 얻어 큰 성과를 올려서 학교에도 도움을 준 나는 되레 교장선생님의 직권 남용과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만 둘까, 생각하니 또 그동안 잘 지냈던 아이들의 영롱한 눈망울이 떠올랐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문자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많이 친해진 아이들이었다. 토요일 오전, 학교 정문으로 다들 나오라고 해서 내차로 고사장으로 태워 나르고, 마음 졸이며 전전긍긍하던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다독겨려줬던 순간들, 시험 다 칠 때까지 부모가 된 심정으로 고사장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순간들, 시험을 마치고 나온 희비가 교차된 아이들에게 이제 다 잊고 피자집으로 가자고 해서 같이 먹으면서 떠들고 웃던 기억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양심의 문제였다. 선배들의 말처럼 관행이라는 사회적인 비양심 앞에 나는 굴종할 것인가? 깊은 고심 끝에, 나는 조금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살아가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사회 초년생인 나의 앞길에 수없이 나타날 길로 여겨졌다.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리라 마음먹었다. 좁은 길은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지만, 진리로 향하는 길이다.

방과 후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던지 내게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께 당신의 제안이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내가 영 쓸쓸했고, 잠시나마 선배에게 조언을 따라 ‘사례금도 드리면서 순순히 따라볼까.’하고 망설였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만두고도 몇 달 동안

“선생님, 어디로 가셨어요?”

하며 고마움을 잊지 못해 연락이 왔던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날 내 양심의 선택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귀감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시간은 흐른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강조되는 자리에 있다. 업무를 하며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 시험대에 놓이지만 그때 좁은 길의 선택이 내 삶의 큰 나침반이 되어, 이제는 단호히 거부하는 용기까지 생기게 되었다.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관행이라는 사회적 비양심적 고리를 끊어 내는 시발점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오늘도 책상 앞에 적혀있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보며 마음을



굳게 다 잡는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





입선 • 공직부문



좀 태워주지 그래?



좀 태워주지 그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이 되었고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행정 등 다양한 소방관의 업무 중 화재진압대원으로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밤, 낮 가리지 않고 뜨거운 불과 싸우는 일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 나는 1여 년이 지난, 2015년의 어느 날 화재 진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주 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이 아닌 운전을 하는 보조구급대원이었지만, 예전 구급차 동승실습을 통해 나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에 한 사람과 한 가정의 행복이 직결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많은 부담이 되었었다. 하지만 생명을 위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기에, 분명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루 출동 중 열에 넷 정도는 단순 주



취이거나 가벼운 초과상, 혹은 진료를 받기 위한 병원 이송 목적과 같은 비(非)응급출동이었는데 그런 출동을 나갈 때 마다 그들 대부분은 ‘병원 말고 집에 데려다 주세요.’, ‘우리 집에 들러서 물건 좀 챙겨갑시다.’ 등 구급차 운용의 목적을 벗어난 규정 외의 요구를 하곤 했었고, 그럴 때 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무리한 요구 속에서도 회의감, 분노 등을 억누르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판단을 하려 노력했다.

그렇게 다양한 유형의 출동을 겪으며 구급대원으로 성장해나갈 때쯤.

어느 날, 나를 부르는 익숙한 출동 벨이 스피커에서 터지 듯 나왔다.

“삐쭍! 삐쭍! 구급 출동. 구급 출동 위치는 000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고 함.”

출동 지령을 듣는 그 즉시 구급차를 타고 출동 길에 나섰다. 그렇게 도착한 신고지에는 60대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계셨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공직부문

“살려주세요. 배... 옆구리 쪽이 너무 아파요...!”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시는 아버씨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한 뒤 응급조치와 함께 구급차로 모셔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아버씨는 요로 결석이 원인이었고, 진통제 처치를 받고 난 후에야 진정되었는지 표정이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고통을 참으며, 우리의 응급처치를 잘 따라주신 그분의 모습은 ‘아...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다면 구급업무가 더 수월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감사한 마음을 남겼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버씨가 근무지에 찾아오셨다.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빨리 와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낫더군요만!”

연신 고맙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씨를 보니 정말 뿌듯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걸요.”

라는 나의 대답에 아버씨는 불쑥 손을 꼭 잡아주셨다.



“생명의 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하나?”

“아저씨 건강하신 모습 보는 걸로 저희는 괜찮습니다!”

“허허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너무 고맙네.”

“진심입니다. 다시는 구급차 타는 일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그래. 참, 우리 집이 바로 이 뒤에 자주 보자고!”

이 방문을 계기로 근무지의 뒤쪽에 사시던 아저씨와는 오다가다 인사하며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이제 퇴근입니다
헤헤.”

“좋겠네. 나는 이제 일하러 나간다!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아저씨와 간간히 나누는 가벼운 인사는 내가 구급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몇 달 후 어느 때와 같이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됐다.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바, 단순주취였지만 혹시 모를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멋진 소방관들!”

저 멀리서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던 아저씨가 친구분들과 함께 걸어오셨고, 내가 있는 쪽으로 오자마자 길에 쓰러진 주취자분을 챙기셨다.

“아이고 이 친구 여기 쓰러져 있었구만.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아다녔는데. 걱정 말어. 우리랑 술 조금해서 취했는데 누가 신고했나벼.”

아저씨는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친구분들께 우리를 소개하셨다.

“내가 맨날 예쁘다고 얘기했던, 그때 나 구해준 아들 같은 소방관들이 이 친구들이야! 아주 내 아들삼고 싶다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복귀하려는 우리를 아저씨가 붙잡으셨다.

“고생이 너무 많다. 배고프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어.”

라며 주머니에 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주셨고 나는 냉큼 빼서 다시 돌려드리고는



“성의를 감사하지만, 저희 이런 거 받을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며 빠르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려는데 아저씨께서 다시 붙잡으셨다.

“그럼 돈만 받는 것이 미안하면 우리들 좀 우리 집 앞까지만 태워다 줘. 바로 소방서 뒤 인거 알지? 우리 맨날 만나잖아!”

갑작스러운 황당한 요구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하게 거절하며

“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아저씨는

“에이 우리 사이에 왜 그래~?”

라고 하셨고 뒤이어 친구분들께 구급차 뒤에 타라는 손동작을 하시며 내 몸을 막으셨다.

너무 순식간에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일행을 보며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저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귀소 중에 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긴급차는 특수한 목적상 환자 외 단순 이송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친하셔도 이건 규정위반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지시며

“아니? 이 친구야! 내가 어디 저~ 먼 곳 데려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는 목적지가 같으니 그냥 살짝 태워달라는 건데 왜 그렇게 뻑뻑하게 굴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어!”

지갑을 다시 꺼내며 만 원짜리 지폐를 더해 내미셨다. 술에 취하신 채 점점 감정이 격양되는 아저씨의 모습에 실망감, 회의감 ‘어려운 부탁이 아닌데 그냥 태워드릴까? 어차피 돌아가는 길이고…….’하는 타협 등 여러 감정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길 수 없는 나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다시 말씀드렸다.

“아저씨! 아저씨가 많이 아끼시는 아들 같은 저희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규정상 태워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의 무거운 목소리와 표정을 본 아저씨와 일행은 순간 정적과 함께 구급차에서 내리셨고 아저씨도 더 이상 돈을 손에 쥐어주려 하지 않으셨다.

“됐다! 거참, 사람이 그렇게 뻗뻗해서 어찌려고 그래? 융통성이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잔뜩 화가 나신 채로 친구들과 걸어가셨고 떠나는 구급차도 본체 만체하셨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근무지로 돌아온 나는 복잡한 감정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오는 길인데 괜찮겠지? 친하니까 괜찮겠지? 고맙다고 주는 돈인데 그냥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야……. 처음이 어렵지 습관이 되면, 돈 받는 일도 규정에 어긋나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될 거야. 혹시 그러다 1분 1초가 중요한 환자들이 우리의 늦은 출동과 응급처치로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잖아. 난 분명 잘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퇴근길에 아저씨와 마주쳤다. 지나가는 아저씨를 보고 급히 붙잡았다.

“아저씨 어디가세요? 저 지금 퇴근 중인데 가시는 곳까지 제 차로 태워드릴게요!”

일부러 크게 웃으며 아저씨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아저씨는

“됐어, 이놈아! 요기 바로 앞에 갈 거야! 비켜! 나 바빠.”

라며 걸어가는 아저씨의 모습에 나는 무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아저씨는 나를 다시 돌아보며, 멧쩍은 표정으로 말하셨다.

“근데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술이 너무 취해서 주책이었어. 이제 구급차는 됐고, 네 차로 빨리 태워 줘 인마.”

해맑게 웃으며 건네는 그 말에 밤새 날 괴롭히던 고민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청렴은 욕심에 맞서는 것 그리고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했으며, 마지막까지 규정을 지킨 나의 청렴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



입선 • 공직부문



대한민국은 변화중



대한민국은 변화 중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뉴스만 보아도 우리 주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관공서 근처 식당에서는 3만 원 이상의 메뉴들이 사라지고,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 포스승의 날이면 교탁 위에 가득했던 선물들도 이제는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공직자들의 뇌물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울만 좋다든가 우리 사회의 표면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법이든 그것이 시행된 후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이다. 나 역시 파출소 근무 중 부정청탁금지법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던 일이 있다.

내가 일하는 파출소 관내에는 상습적으로 도박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하나 있다. 그곳은 식당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속은 아주머니들의 사교도박의 장이었다.



2017년 3월,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처음으로 그곳에 출동했을 때엔, 그들을 꼭 잡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찾아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가게주인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이미 도박하던 사람들이 뒷문으로 도망간 뒤라 단속을 하지 못했다. 경찰 생활 중 첫 도박신고였던지라 잡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아쉬움도 컸다. 그대로 돌아가기엔 아쉬워 건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던 중 도망치기 위한 뒷문을 발견했고 다음 신고 때는 꼭 이 뒷문을 이용하여 검거하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 나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출동에서 발견한 뒷문으로 향했으나 그런 나를 비웃듯이 그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하지만 식당 현관에서 선배가 문을 두드리자 내가 대기하고 있던 뒷문이 열리면서 열댓 명의 사람들이 도망치기 위해 우르르 몰려나왔다.

‘웁거니! 드디어 도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그들을 다시 안으로 몰아넣은 뒤 단속하려했던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선배는 그들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자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이었다.

왜 단속을 하지 않는냐는 나의 질문에 선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 경찰관인 나에게 핀잔을 주듯이 설명을 해주었다.

“도박죄는 도박하는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도박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도 처벌을 못하는 거야. 도박죄로 처벌하려면

그 사람들이 도박하는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야 돼.”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도박죄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들이 도박하는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다면 영영 잡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그 또한 쉽지 않았다.

뽀족한 수가 없어 이런 저런 방법을 강구하던 나는 결국 ‘단속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곳의 도박신고를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간 고민하던 나는 ‘그래, 단속을 못한다면 신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날 이후 나는 근무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였다. 주간근무건 야간근무건 그 식당에 불이 켜져 있으면 문을 두드렸다. 내가 하는 일은 딱히 없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뒷문으로 후다닥 도망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도박판만 어딘가로 숨겨놓고 문을 열어 나를 맞이하며 탄생을 피우기 일쑤였다.

그다지 반기는 눈빛은 아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의 도박을 멈추게 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경찰로써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매일 같이 방문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그곳은 몇 년 전만 해도 번듯한 식당



이었지만 장사가 잘 안 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식당 주인의 거처가 식당 안에 있었기에 그곳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모임의 장이 되었고 점차 사교도박의 장으로 변질되어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방문에 무덤덤해져 갈 때쯤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물어볼 게 있다며 가게 구석으로 나를 이끌었다. ‘뭐지?’ 하며 순진하게 아주머니를 따라 갔던 나의 주머니에 두툼한 것이 쭈욱 하고 들어왔다.

‘이건 분명 돈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나를 뭐로 보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빼내어 아주머니에게 돌려주었는데 족히 100만원은 되어 보이는 돈뭉치였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삭이면서 아주머니를 노려보고 말했다.

“뇌물죄로 입건되기 싫으시면 당장 집어넣으세요.”

단호하게 말하자 아주머니는 흠칫 놀라는 눈치였다.

돈을 돌려주고 도망치듯이 식당에서 나와 씩씩거리며 순찰차를 타는 나에게 선배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자 선배는 질책을 하며 말했다.

“내가 식당주인이라도 너한테 돈을 줬을 거다. 생각해봐라. 경찰관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방문해서 귀찮게 하는데 네가 식당 주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선배의 말을 듣고 나는 멍해졌다. 나의 행동을 되짚어 보니, 마치 영화 속에서 뇌물을 바라던 사람들이 헛기침을 하며 머뭇거리는, 내가 제일 혐오하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던 것이다. 식당 주인은 매일 같이 찾아오는 내가 원하던 것이 뇌물인 줄 알고 고심하면서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잘했다”

질책하던 선배는 돌연 나를 칭찬하였다.

“호건아. 너는 오늘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거야.”

“네? 제가요?”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자 선배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오늘 너는 뇌물이 여전히 통용된다는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꾼 거지. 인식의 변화라는 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서서히 변해가는 거야. 요새 호프집이나, PC방, 음식점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니? 아마 금연법을 시행한 뒤로



는 없을 거야. 너도 알겠지만 처음에 금연법을 시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니?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서 이젠 오히려 흡연이 가능한 가게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야.

아직 경찰이 옛날처럼 뇌물을 주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몇몇 있어.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 정착되는 중이라 아무도 모르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 오늘 너의 행동은 투명한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선배의 말을 들으니 뿌듯한 기분이 들면서 더 큰 사명감이 생겼다.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보다 그들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제일선에 서있다.

며칠 뒤 나는 신호 위반을 하는 운전자를 적발해서 범칙금 처분을 하는데, 운전자가 내게 지갑에서 꺼낸 만 원 한 장을 건네며 한번만 봐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보내왔다. 나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지금 신호위반을 무마하려고 뇌물죄를 범하시려고 합니다. 뇌물죄는 징역까지 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운전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돈을 도로 지갑에 집어넣었다.

이렇듯 아직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식당 주인이나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처럼 여전히 뇌물이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이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식당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지 않듯이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사회도 자연스럽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오늘도 맑은 바 소임을 다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



입선 • 공직부문



예민함의 쓸모



예민함의 쓰모



결혼으로 한창 마음이 달떠서 바쁘게 지내던 어떤 날이었다. 조수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지나는 여름 냄새에 한 눈 팔고 있던 내게, 운전을 하던 신랑이 갑자기 말을 붙였다.

“우리, 이사 왔는데 옆집에 떡이라도 하나 돌려야 하지 않을까?”

“떡? 90년대도 아니고, 자기도 떡 있어도 먹지도 않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생각해 볼게.”

여간해서는 탄죽 거는 법 없이 결혼 준비도 ‘그래그래’하며 소탈하고 무디게 넘어갔던 나인데,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 신랑이 의아해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넘겨주고서 콧노래로 의뭉한 분위기를



쫓으며 그날을 지났다. 내가 어려울 것도 없는 이사 떡에 쉽사리 그러자고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작년 직장에서의 떡이 가져온 작지 않은 파란 때문이었다.

그때는 날이 더워지려는 6월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립 공공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나는 병동 수간호사인 K간호사 아래서 일하고 있었다. 정신과 병동의 특성상, 재원환자 숫자는 많지 않아도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 많았다. 망상이나 환청으로 충동공격적 행동이 심해 최대한 자극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 하나까지 주의해야 하는 환자부터, 자해나 자살시도를 막기 위해 도구가 될 수 있는 끈 종류나 비닐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일이 확인하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환자가 대다수였다.

그 중 I환자는 눈에 띄는 환자는 아니었다. 치료진이나 다른 환자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입원 시에 호소하던 정신과적 증상들도 많이 나아져서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원을 앞둔 환자였다. 그래서인지 모든 이들이 I환자의 퇴원은 병동 일과 중에 조용히 녹아들어 지나갈 것으로 짐작했었다.

대수로울 것 없을 듯했던 I환자의 퇴원이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저녁 근무를 위해 오후 출근을 하는 내게 그가 두고 간 떡 한 박스가 눈에 띄면서 부터였다. 그 떡의 사연인즉, I환자가 퇴원하며 우리 병동 근무자에게 감사

의 의미로 수줍게 전달하려던 떡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간 입원환자로부터의 음료수 등의 소소한 감사 표시가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그해 봄에 시작된 김영란 법의 영향으로 병원 내부의 철저한 지침이 있었다.

낮 근무 간호사가 교육받은 대로,

“성의는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는 조금 당황했지만 수줍은 듯 수궁하고는 떡을 들고 돌아섰다고 한다. 그런데 그 떡은 암전히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덩그러니 병동 문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L환자는 온데간데없었다. 간데온데없는 것뿐 아니고, 사유를 짐작해서인지 병원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쯤 되면 못이기는 척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평소 심지가 곧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K간호사는 내게 ‘절대 먹지 말 것, 다시 가져가도록 연락할 것’을 당부하고서 퇴근을 했고, L환자는 초조한 내 전화를 절대로 받지 않았다.

하필 이 떡을 김영란 법이 실행된 이후에 두고 갈 것은 뭐고, 또 하필 그걸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뭐란 말인가.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여차저차해서 저 떡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물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떡



박스만 원무과로 넘기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긴 한숨 뒤에 이어진 새된 소리로,

“아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대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놓고는 나한테는 어찌라는 말인지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적발사례로 신고당하거나 하면 전부 본인 책임인 건 알고 계시죠? 다시 돌려주도록 하세요.”

라며 나를 혼내다가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전화가 울리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걸 몰라서 거반 백년이 되도록 분단국가로 지내는 것 같으냐며 그녀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관절 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통일을 하며 안 받겠다고 작정한 사람한테 물건을 무슨 수로 돌려 주냐 말이다. 안되면 되게 할 만큼 유능하지 못했던 나는, 별 수 없이 그 떡 박스를 다음날 출근한 K간호사에게 그대로 인계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고, 떡 박스를 받아든 그녀는 어제의 담당자처럼 한숨을 깊게 내 쉴 뿐이었다.

병동사람들이 머리를 모아, 이미 떠나간 L에게 여러 차례 ‘마음은 충분히 받았으니 떡을 찾아가시라’는 종류의 메시지를 남기고는 병동 문 앞에 떡을 그대로 갖다놓았다. 사실 그가 떡을 다시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

있고 우리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떡의 존재를 누구도 책임지기 싫었으며, 터져도 안전한 병실 밖에 놓아두고 서로가 한껏 몸을 사렸다는 편이 맞았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떡 사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병동 출입문 앞에 앉아 어제보다 더 부패되어가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떡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며칠간의 오후 근무를 위해 출입문을 지났다.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처리한 것은 K간호사였다. 그녀는 근무시간을 쪼개어 여기저기 손수 전화를 해 알아보더니, 어렵게 찾은 담당부서 두 군데서 나처럼 긴 설교와 교육 끝에 ‘당장 돌려주도록’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한숨을 쉬어 말했다. 한숨 속에서는 김영란씨가 언제든 뺨을 달고 그녀를 쫓아올 것 같은 불안이 배어있었다.

며칠이 지나 우리는, 담당자가 여기저기 수소문한 지침에 따라 병원에 남아있던 L의 주소로 떡을 반송하고 발송 송장을 첨부하여 서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했던 작년 여름의 떡 사건으로 인해 나는, 부패는 박스 안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깊어가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언제든 포자가 옮겨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크게 가지게 되



었다. 앞뒤 내용을 모르는 누군가가 그 떡을 받아서 접시에 예쁘게 놓고, 설 명도 없이 함께 먹자고 했다면 나는 군말 없이 한 접시를 깨끗이 비웠을 게 분명하다.

전혀 의도한 바 없지만 내가 ‘받은’ 것이 되어버렸던 그 떡은, 세상 더없을 것 같았던 그 억울함은, 내가 살면서 휘말릴 수 있는 다양한 오해의 프롤로그가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이 되었다.

이후 우리 병동은 K간호사의 지휘 아래에서 그간 관례처럼 해오던 것들을 과하다 싶게 줄이고, 없앴다. 모든 회식 전에 각자 계산하기로 사전에 공지했고, 특정인의 생일,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도 더는 챙기지 않았다. 병동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찾아오는 신입 간호사나 퇴직한 간호사들의 빵 한 봉지도 받지 않게 되면서 떡 사건 이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받았다’ 혹은 ‘받지 않았다’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을 경험한 근무자들은 모두 두말없이 동참했고, 다소 각박하다 싶게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에서 그 해를 보냈다.

해가 바뀐 지금은 내가 근무지를 바꾸면서 K간호사도, 다른 병동사람들도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번, 가까운 지인에게 병원의 수술 스케줄의 빈 시간을 확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맞지만 확인해 달라는 쉬운 부탁이었다. 이전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귀뜸을 해주었을 텐데, 예민해져서 잔뜩 움츠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었다.

듣고 보니 같이 일하는 상사가 우리 병원 진료를 보고는 수술 일정을 원하는 만큼 가까이 당기기 위해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였다. 상사는 자신에게 부탁한 적 없지만 개인적인 충심이라는 사람 좋은 너털웃음까지. 이렇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의 하얀 떡이 내 앞에 배달된 것이다. 나는 두말없이 청렴교육 때 받았던 교육 자료의 페이지를 넘겨서, 병원진료 순서를 바꾸는 것은 청탁임을 알려주고,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지인은 서운해 하기보다는 고마워하면서 뒷머리를 긁적였고, 나는 혹시 내 태도가 예민하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그날의 대화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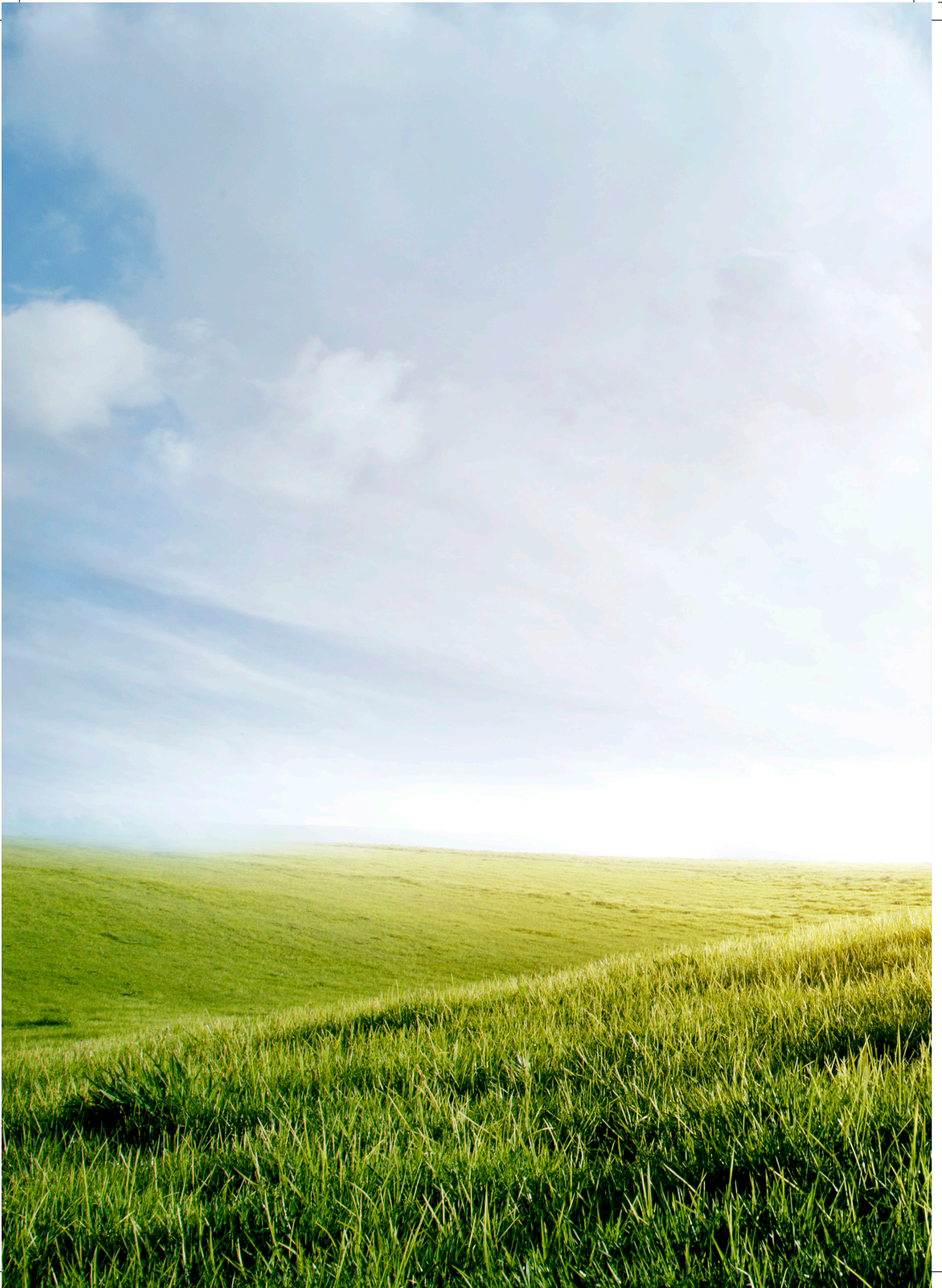
부패는 정치하는 높으신 분 혹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은색 007가방에 담겨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부패를 대하는 나의 모습은 굴이나 까먹으며 남자주인공을 바라보거나 혀를 끌끌 차며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부패는 어느 순간에 순진무구한 관례와 감사, 충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미세먼지처럼 퍼져서 결과적으로 모두를 잠식시켜버리는 것이었다. 일련의 사건 후에 나는 떡 한 박스가 내게 불러왔던 불안감과 당혹감을 기억하며, 공공기관 소속의 현직 직원으로서 행여나 안개처럼 번지는 부패에 휩싸이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소 과하게 예민하



고, 고지식한 자세를 견지하는 중이다.

며칠 있다가 신랑이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옆집 인사는 둘이 손잡고 빈손으로 가는 건 어떠냐고 한번 툭 던져보야겠다. ♪





입선 • 일반부문



수많은 선택지 속 단 하나의 이정표



수많은 선택지 속 단 하나의 이정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결제와 할인카드, 회원고객 혜택에 대한 안내 멘트를 외치는 와중에도 길게 늘어선 줄 옆에 서서 서성이는 한 아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다. 표정을 보아하니 계산을 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눈치는 아니었다. 무슨 일인지 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당장 밀린 손님이 한 둘이 아니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삼십 분 정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마지막 손님의 결제를 끝낸 참이었다. 텅 빈 카운터 앞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한숨 돌리는 김에 차가운 음료수라도 한 모금 들이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주먹을 말아 쥐고 빼근한 어깨를 툭툭 치며, 영수증과 펜으로 난잡해진 카운터를 치우고 있자 누군가가 앞으로 와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까 전부터 카운터 근처를 서성이던 앓된 얼굴의 여자 아이였다. 대강 어림잡아도 삼십 분을 훨씬 넘게 기다린 셈인데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



다. 혹시 매장 내에서 질 나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건 아닐까. 여전히 살 물건을 들고 있거나 다급해 보이진 않았지만,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확실히 말해주기 전에는 속마음을 알기 어려우니 말이다. 나는 아이에게 최대한 살 겁게 말을 걸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게 있을까요?”

“.....”

“괜찮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

내가 호의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미소를 머금었지만 아이는 쉽사리 말문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뒤로 감춘 어정쩡한 자세로 우물쭈물하며 얼굴을 더욱 더 붉힐 뿐이었다. 나로서는 당장 카운터 정리가 급한 일도 아니었으니 천천히 아이를 기다려주기로 했다. 떨고 있지도 않고 안색이 창백 하지도 않은 점,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다행히도 불상사에 휘말린 것 같지는 않았다. 외중에 손님 두어 명이 더 계산을 하고 가셨다. 이제 거의 한 시간이 지난 즈음이었다. 카운터 앞에 계속 세워두기도 미안하고, 아이의 다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해서 나는 다시 한 번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매장 이용에 불편하신 게 있으셨나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향후 운영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내 표정에서 난처함을 읽은 것인지, 아이는 뒤로 감췄던 손 하나를 빼내어 손사래를 치며 도리질을 했다. 가냘픈 목소리. 더욱 더 오리무중에 빠져든 나는 고개를 가우푹 기울였다. 그러자 아이는 결심했다는 듯 여전히 뒤로 감췄던 남은 한 손마저 꺼내어 내 앞으로 내밀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맛 우유. 종이팩 표면에는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뒤 꽤 오랜 시간 들고 있었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걸 왜 나에게? 당황한 나는 그 우유를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예상한 몇 가지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생리대를 빌린다든지,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매장 물건에 살짝 손상을 입혔다든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흥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다.

“저번에 왔을 때, 친절하게 해주신 게 기억에 남아서요……. 비싼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듣자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일전에 회원가입을 하지 못해 찢찢매는 아이를 차근차근 도와줬던 적이 있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아이에겐 제법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다. 나도 덩달아 얼굴이 빨개졌다. 귀가 달아올라서 순식간에 더워지는 기분이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친절한 나’라는 이미지에 도취되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내민, 조그마한 200ml짜리 우유를 잠시 바라보았다. 별안간 수 년 전의 희미한 추억이 아스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중학생 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조금 더 살살 깨물고 싶은 손가락은 하나쯤 있기 마련이다. 어떤 선생님이든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더 좋아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 그에 불만은 없었다.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지도, 그런 식의 조건부 사랑을 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른인 척을 했었던 것 같다. 누구보다 애정에 목말라 있었기에 오히려 초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나는 방과 후 집에 틀어박혀서 내 또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고전 영화나 독립 영화들을 주구장창 봤다. 느릿한 장면이나 사운드가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마음에 콕 박힌 대사와 장면들은 내 내면을 차곡차곡 채워서 지겨운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내신 국어 선생님 대신 새로운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다. 칠판에 성함을 쓰시고 푸근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젊는데다가 유머감각이 있고 모두에게 친절하셨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 쉬는 시간이면 교무실이 선생님을 보러 온 학생들로 북적거릴 정도였다. 나 역시 선생님이 좋았고, 친해지고 싶었지만, 말주변도 없고 감정표현도 서툰 나로선 다가갈 방도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잘못된 게 없는데도 교무실로 불린 적은 처음이라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별 내색 않고 선생님을 따라갔다. 선생님은 상담실로 나를 데려가더니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번 독후감, 정말 잘 읽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 일단 그 책과 다른 영화를 결부 지어서 스토리를 엮은 것도 참신했지만 비평이 남다르더구나. 평소 독서를 많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문장력도 탄탄하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도내 독후감 경연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이렇게만 써서 내본다면 좋은 경험이 될 듯한데.”



성적도 운동신경도 평균을 겨우 웃돌던 나에게 이런 식의 칭찬을 해준 것은 선생님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내가 조용하게 다져온 ‘어떤 세계’를 한 번에 알아주기까지. 내 글 실력이 실제로 뛰어난지 아닌지, 자신이 있든 없든 나는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 세계를 향해 손을 뻗어준 최초의 사람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대상을 수상했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 수상경력을 쌓았다. 부모님도 내 재능의 발견을 달가워하셨고, 학교에서도 꽤나 입지가 두터워졌다. 운동장 조회 시간마다 조회대에 올라가 상을 받는 것도 즐거웠다. 선생님은 복도에서 나를 마주칠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셨고,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 같았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백화점에서 고급 넥타이를 샀다. 꽤 비싼 남성 정장 브랜드였는데, 상급에서 조금씩 따로 모아둔 돈에 용돈을 보태서 겨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모을 수도 없었던 돈이니까. 마지막 겨울 방학만이 남은 학교는 썰렁했다. 학생들은 거의 자거나, 수업을 땡땡이 치거나, 학교를 잘 나오지 않았다. 나도 이미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붙어서 출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꾸준히 아홉 시에 등교를 했다.

방학식 전날, 나는 교무실로 내려가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셨다. 바로 선물을 드릴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뒤로 감춘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소소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는 화젯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물쭈물하며 진땀을 뺐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눈치 채셨는지, 부드러운 말투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봐 주셨다. 결국 긴장으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린 나는 준비했던 감사 인사는커녕 아예 입도 열지 못하고 선생님께 포장된 넥타이 박스를 불쑥 내밀었다. 선생님께서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셨다. 나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뒤 졸업식에 이 넥타이를 하고 와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그저 너에게 다른 길도 있다고 알려주는 수많은 이정표 중 하나가 되어줬을 뿐이야. 모든 건 네가 해낸 일이니 까, 나 대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선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선생으로써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네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이니 마음만큼은 내가 지니고 있도록 하마.”

결국 선생님께서는 선물을 받지 않으셨다. 나는 약간의 수치심과 당황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선생님이 실은 나를 싫어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하는 피해의식까지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후에 동창회에서 알게 된 바로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평소 건네는 과자나 초콜릿, 작은 선물조차도 일절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선물의 크기와 가격을 떠나서, 그것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뒤로는 거절할 명분도, 자신도 없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어찌 보면 융통성 없고, 조금 고지식한 처사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도 없었고, 학부모들의 선물이나 단체음식도 공공연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새로이 알게 된 선생님의 곶은 면모에 더욱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록 기간제 교사였던 만큼 다시 뵈 방법은 없겠지만 선생님을 영원히 내 마음 속 귀감으로 삼게 되었다.

“죄송하지만, 매장 내 규칙 상 고객님의 물리적인 것을 받을 수 없어 서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기억해주시고 다시 찾아주신 마음만큼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자주 올게요.”

예상 외로, 아이는 별로 실망한 기색도 없이 금세 납득을 하고는 인사를 꾸벅 하고 사라졌다. 마침 손님도 없는 참이고,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당장의 기분만큼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언제나 내 책상 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급 벡타이의 색 바랜 박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늘 옳은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선생님이 유난히 보고 싶어졌다. 나는 어느새 선생님처럼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





입선 • 일반부문



버스기사의양심



버스기사의 양심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2017년 7월 중,

직장에 출근할 때 있었던 일이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다. 내가 탄 버스는 사고가 잦은 곳을 지나가는 루트를 지닌 버스라, 그날도 어느 정도의 긴장은 유지하고 있었다. 버스 기사님께서도 그 지점에만큼은 버스를 더 천천히 몰아가며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듯했다. 거의 다 빠져나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긴장을 서서히 풀어가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차 하는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핑!”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뒤차가 버스를 심하게 들이받았다. 승객들은 모두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나마 서있던 승객 중에서만큼



은 크게 다친 승객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맨 뒤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부상 크기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사님께서도 창문에 얼굴을 들이받으셨던지 안경알에 금이 가있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기사님께서서는 안경을 벗어서 운전석에 두신 다음 뒤편으로 달려가다시피 하며, 승객들의 안전 상황부터 살피셨던 것이다.

“승객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그때 내가 말했다.

“그나마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들과 서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뒤 좌석의 승객들이 걱정됩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기사님께서서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시며 놀란 눈으로 승객들을 살피셨다. “평”이라는 소리가 다 들릴 만큼 세계 들이받아서였던 지,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모두 조금씩 다치고야 마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분명 기사님께서도 안경에 금이 갔을 정도면 신체에 큰 충격이 갔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승객들부터 생각하고 살피시는 모습은 지금 다시 생각

해봐도 정말 훌륭하고 대단했다.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는지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허리를 많이 편찮아 하셨고, 바닥에 누운 채로 일어나지를 못하셨다. 일부 긴장한 청년 승객들까지 합세해서 할아버님을 모시려 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에 선뜻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다.

사고가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나갔다. 참고로 난 긴장한 청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친 승객들을 함께 대피시키며 나중에 내렸다. 거의 모든 승객이 대피하고 버스 안에 남은 승객들이라고는 청년들과 기사님, 그리고 그 할아버님뿐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할아버님은 저희 구급대원들에게 맡겨주시고, 일단은 버스에서 내려서 응급치료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청년들은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기사님께서서는 끝까지 할아버님을 살피셨다. 그리고는 구급대원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냥 내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데요.”



기사님께서서는 끝내 구급대원들과 힘을 합쳐 할아버님을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했고, 마지막까지 할아버님을 부축해서 버스 밖으로 함께 내리셨다. 할아버님께서 내리시자마자 구급대원들은 그를 들것으로 실어 구급차 내부로 이동시켜드렸다. 그리곤 바로 인근 병원으로 출발하려는데, 기사님께서서는

“저도 같이 갈게요. 사고 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났을 땐 끝까지 기사가 책임지는기 맞습니다.”

라고 하시며 구급차에 올라타셨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내 입에서는 감탄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울컥한 마음마저 함께 솟구쳤다. 너무나도 고마운 기사님이셨다. 직업의식과 기본적인 윤리까지 갖추신 분이 버스를 운전해주셔서 정말이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기사님께서서는 내려서 치료를 받고 있던 승객들에게도 인사를 아끼지 않으셨다.

“승객 여러분. 기사로서 사고를 낸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다치지 않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 많이 다치기까지 하셨더라면 저는 앞으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기사님의 진심 가득한 말씀을 듣고 있던 나는 감동스러움에 눈물이 났다. 이 얼마나 양심 있고 훌륭한 기사님이신가. 최근에 배가 침몰하게 될까봐 제일 먼저 빠져나와 도망갔던 일부 선장들의 판결 기사가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에, 기사님의 양심 가득한 행동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 승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기사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있던 중년의 한 여자 승객께서는 양 볼에 흐르던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다.

“끝까지 승객만을 생각해주는 기사님께 박수를 칩시다. 저런 기사분이 세상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승객과 구급대원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기사님께서서는 오히려 그러지 말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고는 곧장 구급차를 타고 할아버님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떠나셨다. 이후의 일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허리를 다치신 할아버님도, 기사님도 지금쯤 쾌차하셔서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리라 믿는다. 아니 꼭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 일로부터 꼭 3 주째가 되는 날이다. 버스를 탈 때면 이따금씩 그 기사님이 떠오른다. 끝까지 승객들을 책임져주시고, 직업정신과 사람으로서의 윤리와 양심을 지켜주신 그 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은 많지만, 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신보다 승객들을 진정으로 먼저 생각하는 기사님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아직도 나는 다친 데는 없냐며 괜찮은지 물어봐주시던, 그 기사님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양심 있다’와 ‘정직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례를 두고 할 수 있는 말 아닐까?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서 항상 들었던 말이 있다.

“양심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 오면서 양심 있고 정직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비록 시간이 흐른 지금은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7월 초의 버스 사고였지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양심 있게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

만약 기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버스를 운전하고 계신다면, 나는 그 버스를 탄 승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입니다.”라고. 요즘 들어 사람들은 이처럼 말한다. 세상이 너무 변했다고. 양심을 지키기보다 개인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세상이 되어간다고.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다. 아직은 세상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양심 가득한 기사님과 같은 분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결코 세상은 그리 쉽게 변화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버스 기사로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러나 죽음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고 현장에서 과연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양심을 지키고,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을 지켜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오늘부터 우리도 기사님처럼 타인에게 양심을 지키고, 정직함을 바탕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해보자. 살면서 항상 실천해나가고, 항상 듣는 말이 “기분을 지켜라.”인 것처럼, 기본과 더불어 양심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본다. ♡



입선 • 일반부문



6살,
정직은 알아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 일반부문

6살, 정직은 알아요.



“엄마, 양심이 뭐예요?”

유치원을 옮기면서, 걱정과는 달리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하고 싶었다.

‘김영란 법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학부모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였지만 ‘음료수줍이야.’ 하고 보냈던 것이 되돌아왔다. 아들은 선생님이 양심상 받지 않고, 엄마 것이라고 가방에 담아줬다고 했다.

“서준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면 돼? 안돼? 자기가 한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마음이야.”

아이는 정직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머님, 음료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받으면 다른 아이들에



계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지 못할 것 같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음료수와 함께 담긴 선생님의 메모는 그 어떠한 설명보다도 명쾌한 답변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의 실내화를 사기 위해 함께 대형마트에 갔다. PVC재질의 하얀색 실내화를 이것저것 골라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신겨보았다. 실내화는 신축성 있는 끈으로 양쪽이 서로 묶여있었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걸음을 걷게 해보는 순간 재질이 얇은 실내화가 찢어져 버렸다. 황급히 아들의 발에서 실내화를 벗겨냈다. 그리고 누가 보지는 않았는지, 주변을 살피며 그것을 비닐봉투에 다시 담아 진열장 속에 넣어두고, 동일한 상품의 다른 실내화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엄마 나 찢어진 신발은 싫어요.”

“서준아,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 그리고, 조용히 해봐봐.”

“그런데, 엄마. 저 찢어진 신발은 누가 신을까? 응? 찢어진 신발은 누가 가져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나와는 달리, 천진난만한 아들은 큰소리로 말하며, 찢어진 실내화를 가져가게 될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아이에게 설명도 못하고 얼버무리

고.....’ 내키진 않았지만, 찢어진 실내화를 다시 들었다. 아이는 찢어진 신발에 불만을 토해냈다.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계산대 앞에 섰고, 혹시나 하는 생각과 포기하는 심정으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랬군요. 꼬마 손님. 아줌마가 예쁜 새신발로 바꿔줄게.”

고맙게도, 찢어진 실내화는 불량 상품으로 수선을 위해 수거해가고 우리는 정상 상품으로 바꾸어 구매할 수 있었다.

“아빠,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서 새 신발 췌어요. 찢어진 신발 아니에요.”

새 신발에 기분이 좋은 아들은 아빠에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 만약, 내가 그 일을 무마해버렸다면, 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과연 내 마음은 편했을까?

몇 년 전의 일이 생각난다.



신혼 초에도 그랬지만, 아이를 낳고도 남편은 새벽 출근 한밤중 퇴근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고, 남편이 출근 하고나면 아이 깨워서 씻기고 아침을 먹여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다. 남편의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계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남편은 항상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었다. 청년 실업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면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남편은 더 답답해했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여느 중소기업보다 급여가 높아도 건설현장에는 지원자조차 없었다. 그래서 학교 후배들을 불러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일쑤였다. 낮에는 부족한 인력분에 대한 현장일을 하고, 밤에는 서류작업 등 잔업을 해야 했다.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혹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신분증 좀 빌려 쓸 수 없을까?”

밤 12시가 다 되어 퇴근한 남편이 술 한 잔 하면서 말을 건넸다.

‘이건 무슨 소리? 그렇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출이네, 신분증 도용이네, 하는 무서운 세상에 신분증을 빌려달라니. 그것도 내 것이 아닌 내 부모님 것일?’ 놀라기 이전에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턱 막혔다.

남편 말인즉, 현장에 고용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체류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서류상 지금 당장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급여 지급에서 문제가 생기니, 부모님을 현장 근로자로 내세워 서류를 대체하고,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뭔가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선뜻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단번에 알 것 같았다.

‘불법 체류? 뭐 이런 건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게다가 부모님 신분증을? 과연 부모님은 듣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내 심정을 눈치 챘는지 남편이 한마디 더 거들었다.

“그리고, 서류상 180일 이상 일하면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3개월인가 몇 개월인가, 못해도 8~9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피약별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농사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께 8~9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말이 60세지, 시골 어른들이 그렇듯 마르고 까만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은 여느 70세 넘는 노인과 같았다. 그런 부모님께 아이가 아플 때마다 도움을 청하면서 용돈도 많이 못 드렸는데, 공돈이 생긴다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잠깐만 빌릴 거야, 사방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으니깐.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당은 줘야



할 것 아니야. 일을 시키고 그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마음 한편이 찝찝하고 불안했지만, 남편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부모님께 말씀 드려보기로 했다.

예상대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실, 최대한 걱정을 줄 여보고자, 외국인 근로자 이야기는 빼고 부모님 실업급여 타는 이야기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셨다. 평생 땅만 파셨던 분이었는데도 옳지 않은 일임을 직감하셨나 보다. 결국엔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을 설명하고, 사위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사 설득하여, 연령이 해당이 되는 어머니(장모님)만 신분증을 빌려주시는 것으로 허락을 받았다.

‘일한 인부에게 급여를 주기 위함이야.’라며 공동에 대한 욕심을 예쁘게 포장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신분증을 빌려간 후로 남편일이 조금은 나아졌는지보다, 신분증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 외국인 근로자는 별일 없는지가 걱정이 되었다.

“무슨 일 없나? 박 서방은 회사에 별일 없지?”

그날 이후 부모님의 안부 전화 횟수가 늘었다. 아니, 안부를 가장한 확인 전화였다. 나도 이런저런 생각에 불안한데, 당사자인 부모님 걱정은 안 봐도 알 것 같았다.

‘다른 인부를 구해보라고 할까? 하다못해, 부모님보고 가서서 잔업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하나? 그럼 진짜 일한 거니까, 괜찮잖아?’

많은 고민 속에서 보낸 2주가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밝은 얼굴로 이른 퇴근을 했다. 기분이 좋아 보여서 말을 꺼내려고 눈치를 살피는데, 남편이 먼저 인부가 구해졌다고 말을 꺼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학교 후배가 복학 전에 일을 좀 해주고,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방학기간 동안 학교 후배 몇 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장 인력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문제는 어머니 신분증이었다. 남편은 이왕 빌린 거 장모님께 한 푼이라도 드리고자,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아니,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신분증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부모님의 걱정과 내 생각을 이야기 했다. 또한, 부끄럽지만 공돈에 혹했던 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하며 다른 동료이야기를 하나 했다.

그는 일당 노동일을 했던 대학생 조키를 근무 일수가 부족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게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맞게 지속적으



로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던 것이다.

남편은 그것처럼 하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본인도 한편으로는 자꾸 신경이 쓰였고, 그때 당시 동료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선 본인이 똑같은 일을 하려했다며 겸연쩍어했다.

신분증을 돌려받은 부모님은

“이렇게 해결될 것을 조금 더 기다려볼 걸 그랬다. 잘했다. 잘했어.”

하며 안도해 하셨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던 부모님은 그제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음료수를 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편애가 이뤄질 것 같아 음료수를 받지 않은 선생님처럼, 공정함을 위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 앞에 갈등하는 것은, 그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림? 6살 아들은 알지 못한다.

양심? 6살 아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낀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일반부문

정직? 6살 아들은 안다. 또한, 그것이 옳고, 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청렴과 부정부패는 작은 음료수가 편애와 촌지로 발전하듯 일상생활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양심이 있고, 6살 어린 아이도 아는 정직함만 있다면, '청렴'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도, 잘못된 내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입선 • 일반부문



신문지 꽃다발



신문지 꽃다발



“무전(無錢)이 무성(無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성의를 보여야 할 때, 금전적인 정성 없이 말이나 마음만으로는 진심이 전달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직장 상사의 자녀 결혼 청첩장을 받아 쥐면 고민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형편이 쪼들려 축의금을 5만 원만 내고 싶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감히 그럴 수 없어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봉투에 넣으면서도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혹시 1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무전이 무성”이라는 희한한 적언(?)을 다시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성의와 돈은 별로 상관이 없다. 진심과 돈은 더더욱 상관이 없다. 진심이 머물지 않는 곳이야말로 그 텅 빈 구멍을 메우느라 돈이 오가는 것이다. 나는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다.



초등학교 2학년 스승의 날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쥐어주시는 선물을 들고는 출렁출렁 학교를 갔다. 아이들도 모두 선물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스승의 날이니 잊지 말고 꼭 선생님께 드리라는 어머니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이 선생님 생일인 줄 알았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각기 선물을 들고 온 줄 알았다. 나도 생일 때는 연필깎이나 스케치북 같은 걸 선물로 받곤 하니까 선생님도 생일에는 당연히 받으셔야 했다. 이상한 건, 옆 반도, 옆옆 반도 모두 담임 선생님들이 생일을 맞이하셨는지 아이들이 크고 작은 선물을 들고 학교에 왔다는 점이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자 반장은 차렷 경례를 했고, 우리는 그 의식이 끝나자마자 선생님께 생일선물(?)을 드렸다. 나는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선생님이 하하 웃으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선물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내 짝 오중민(가명)이라는 아이는 빈손이었다. 그 아이는 우리처럼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게 아니라 저만치 떨어진 뒷산에 살고 있었다. 정확히는, 산 중턱에서 과수원을 하는 먼 친척네 집의 안 쓰는 비닐하우스 하나를 얻어 일가족이 살고 있었다. 오중민의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는데, 형편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교탁으로 우르르 몰려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때 선생님도 웃고 우리도 활짝 웃었다. 나는 당당하게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는 뒤돌아서 내

자리 쪽으로 향할 때 혼자 자리에 앉아 있는 오중민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모두가 왁자지껄 떠들며 교탁에 몰려 있을 때, 내 짝은 혼자 자리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 짝의 심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서글픈 표정은 내내 잊히지가 않는다.

다음 날이었다. 오중민은 신문지로 돌돌 싼 꽃을 한 아름 들고 학교에 왔다. 웬 거냐고 물으니, 자기 어머니랑 같이 뒷산을 돌아다니며 예쁜 들꽃을 골라 꺾어온 것이라 했다. 오중민은 어제와는 다르게 헤헤 웃으며 밝아 보였다.

선생님이 오시자 오중민은 주뻗주뻗하며 신문지 꽃다발을 든 채 교탁 쪽으로 걸어갔다. 모두 웅성거렸다. 선생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하고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계셨다. 그러고는 양팔을 벌려 오중민을 안아주셨다. 아홉 살 나이에도 짝사랑이란 게 있고, 그 대상이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시 나의 짝사랑은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안아주시지 않던 선생님은 오중민을 외락 안아주신 거였다. 게다가 어제처럼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도 아니고, 오중민 혼자서 교탁 앞에서 있으니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오중민이 정말 부러웠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물보다는 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일이 너무 부러워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을까. 그 일이



내내 기억났다. 그날 오중민이 드린 ‘무전(無錢)’의 신문지 꽃다발은 그 어떤 선물보다 선생님을 감동시킨 것 같았다. 무전이 곧 무성이 아니고, 금전적 가치보다는 진심과 정성이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다. 어릴 때 짝사랑이었던 담임 선생님 흉내를 내며 아이들에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도 학자금 대출 받아놓은, 미래에 꼭 갚아야 할 빚에 대한 부담감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늘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더러 짜증도 냈고, 말 안 듣고 떠드는 아이에게는 벌을 세우기도 했다.

그때 맡았던 아이들 중에 유독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교실 여기저기를 배회하며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했는데, 나는 그 꼴을 볼 때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걸 간신히 참곤 했다. 내가 원장이었으면 당장 학원을 못 나오게 했을 테지만, 월급 받는 입장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못 됐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수업 중에 콜라 캔을 마구 흔들더니 친구들에게 뿌려대는 것이었다.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너 뒤에 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 양팔 들고 서 있어!”

내 기세에 눌린 녀석이 풀이 죽어 벌을 받자 고소하더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다음 날이었다. 녀석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마침 그때 나는 수업이 없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강사들은 수업에 들어간 상태였다. 아이 어머니를 보자 덜컥 겁이 났다. 어제 벌 준 것 때문에 따지러 온 줄 알았기 때문이다. 원장에게 거칠게 항의라도 하면,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한테 소문이라도 내면 나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기껏해야 대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르바이트 강사가 될 믿고 아이를 벌 세웠단 말인가! 정말 후회됐다. 그런 생각이 들자 사람이 비굴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아주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배꼽 앞으로 모으고는 “OO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깎듯이 인사했다. 아이 어머니는 되레 내게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며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나보다 스무 살은 많은 아주머니가 그렇게 나오자 나는 깜짝 놀라 더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우리 아이가 좀 많이 속을 썩이죠?”

나는 아니라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마음에도 없이 헤헤 비굴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제발 원장님한테 엉뚱한 말씀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아이 어머니는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ADHD를 앓고 있어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야 나는 녀석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니는 학원마다 쫓겨나기 일쑤예요. 이젠 이 인근에서 여기 말고 다닐 학원도 없어요. 제발 선생님, 우리 아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이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왜 안 그렇겠는가. 나는 아이를 낳아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 심경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저기, 그리고 이거…….”

아이 어머니는 편지 봉투를 내밀고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나셨다. 나는 못 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쓰셨나 보다, 아이 어머니가 정성이 대단하니 내가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봉투 속에 든 건 편지가 아니었다. 편지와는 다른 형식의 정성이었다. 현금 20만 원. 당시 아이 한 달 학원비와 맞먹는 액수였다. 나는 액수를 확인한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이걸 받아도 되나 싶어 죄책감이 일기도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니 그만큼 더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자기합리화도 하며, 나도 경제적으로 코가 석자인데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영화에서나 보던 이른바 ‘돈봉투’를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쭐한 기분도 들었다. 그건 정말 부끄럽고 구질구질한 우월감이었다. 우쭐해진

기분을 느낀 그 몇 초가 아직 잊히지 않는다. 내 마음에도 그런 옳지 못한, 어둡고 추잡한 구석이 있다는 게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분이 들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봉투를 받는다는 것은 자식을 걱정하는 애끓는 부모 심정을 악용하는 걸 의미했다. 무엇보다, 성 자처럼은 못 살아도 약당으로는 살지 말자는 내 인생의 신념이 고작 20만 원 앞에서 흔들리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내 인생과 양심이 20만 원 짜리가 되는 걸 거부하기를 택했고,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아니 그보다 더 큰 액수라 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런 다짐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내 짝 오중민과 담임선생님이었다. 들꽃을 신문에 써서 내민 가난한 집 자식 오중민. 그러나 선생님은 그 마음에 감동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체온으로 오중민을 안아주셨다. 어떤 까닭인지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할 때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20만 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뉴스에서 보던 부정부패의 양상과는 분명 다른 성질의 돈이었고, 그 돈을 받는 게 오히려 아이 어머니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길일 수도 있었다. 그리 호들갑 떨 만큼 큰돈도 아니었고, 내게는 한 푼의 돈이 아쉬운 때였다.

그러나 돈의 액수와 성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내 마음이 문제였다. 이익을 앞에 두고 나는 정직을 생각하지 않았다. 돈 봉투를 앞에 놓고 내 마음에 떠오른 것은 정직이나 청렴, 정당함 등의 올바른 가치가 아니었다. 내 마음에는 즉각적으로 욕심이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그 점이 나는 두고두고 부끄럽다. 돈은 돌려줬지만, 그 마음을 몇 초라도 유지시켰다는 점이 지금도 부끄럽다.

내가 만약 그 봉투를 받았더라면 마치 음식이 상하듯 순식간에 부패해버린 내 마음이 영영 회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좋은 게 좋은 것', '무전이 무성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얼렁뚱땅 살았을지도 모른다.

한 번 상한 음식은 다시 싱싱해질 수 없듯, 한 번 부패해진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힘든 일이다. 어찌면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모두가 보란 듯이 오중민을 안아주신 것은 들꽃이 예뻐기 때문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돈을 들인 선물보다는 진심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정직이 훨씬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치신 게 아닌가 한다. 그 부러웠던 장면은 두고 두고 내 뇌리에 박혀, 내가 부끄러운 갈등을 할 때마다 나를 따끔하게 가르친다. ♪





입선 • 일반부문



새 달력



새 달력



타다닥. 트르륵. 타다닥. 트르륵.

끊임없이 달력을 찍어대던 기계도 잠시 운영을 멈추는 명절이지만, 아버지의 달력공장은 온전한 휴일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던 두어 달은 늘 쏟아지는 주문량 때문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 어떡하든 고객들의 주문량을 맞춰주기 위해 공장에서 숙식까지 해결하시던 아버지는 연말이 되면 항상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집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마저도 부랴부랴 씻고 갈아입을 옷만을 대충 챙기신 후, 우리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녘에 또 공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도 바쁘고 아프기만 하던 겨울은 어린 저에겐 매서운 날씨보다 더 시린 계절로만 여겨졌습니다.

설날 무렵이면 우리 형제는 종종 엄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달력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면도할 시간도 없으셨는지 아버지는 몰라보게 수척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작은 책상과 간이침대에는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를 채우고도 남을법한 많은 선물들이 켜켜이 쌓여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에 두 분밖에 되지 않던 직원들도 고향집에 내려가시고 달력을 인쇄하던 육중한 기계도 침묵하는 조용한 공장에서 아버지와 엄마는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엄마도 변변히 기본 적 없는 백화점에서 사 오셨다는 상품권.

엄마가 시골 외할머니에게 부탁드리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쫓아가서 받아 오신 꽃감과 호두도 있었고, 막내삼촌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한참 실랑이 하신 후 그나마 싸게 사오셨다던 소고기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가죽지갑과 허리띠도 있었고 식용유와 참기름도 비누와 치약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어떤 것은 금색 보자기에 어떤 것은 상자를 곱게 접어

정성스레 포장하셨습니다.

어느 해에는 선물 포장을 하시던 부모님 곁에서 너무도 배가 고파 동생과 참치 캔과 햄을 몰래 뜯어 먹다가 아버지께 혼쫓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을 다 끝내시고 나서야 차디찬 공장 바닥에서 김치도 없이 버너에 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던 우리 가족.

몇 대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그 오토바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신 뒤에야 아버지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린 시절엔 아버지의 공장에 있는 맛있는 먹을거리와 폼 나는 좋은 것들을 왜 우리는 먹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일까 궁금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IMF가 찾아왔고 아버지의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10년을 넘게 같이 일해 와 제게도 삼촌 같이만 하시던 직원 두 분에게 해고를 통보하셔야 했던 날, 공장 구석에서 혼자 소주를 드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간혹 저와 동생이 나가 아버지의 일손을 돕기만 해도 거뜬할 정도로 주문량은 이미 반 토막 난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그 해도 선물 포장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달력 사는 사람도, 주문하는 업체도 없는데 선물은 뭐 하러 하세요? 김 씨 아저씨랑 송 씨 아저씨 이번 달 월급도 못 받으시고 나가셨다고 하시던데 그것부터 챙겨 드려야 하는 거 아니요?”

당장 당신의 공장을 폐업해야 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지경에도 타인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싸시는 아버지가 미련스럽게만 보여 소리를 지르며 따지듯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 가족 같았던 직원들 퇴직금은 커녕 월급도 밀린 채 내보내면서, 내도 이 짓을 하고 싶어 이러는 줄 아나? 남들이 하나까! 여태껏 해 왔으니 까 어쩔 수 없어서 한단 말이어. 이놈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지 이런 관행은 없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어. 그러니 공장 문 닫을 때까지는 달력 찍는 일도 선물 하는 일도 할 수 밖에 없는 거!”

1월 2월 3월…….12월.

속지와 바깥지까지 합쳐 아버지가 뼈 빠지게 12장을 넘게 찍어 내 일 년 치를 만드셔도 고작 1000원도 남지 않던 달력.

재고로 쌓여 있던 달력 곁에 놓여 있던 달력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던 그 값비싼 선물들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서나 봐 오던 억 소리 나던 금액의 뇌물과 결코 뿌리 뽑히기는 힘들 거라던 관행들은 대기업이나 부자들만의 고위관료나 교육계의 일만이 아닌 아버지의 손바닥만 한 공장까지 지배하고 있는 놀랍도록 무서운 일임을 말입니다.

매해 찍어내는 달력의 개수는 줄어만 갔고, 포장할 선물도 간소해져 갔지만 아버지는 월세도 근근이 내던 달력 공장을 결코 놓으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성인이 된 동생과 제가 공장일과 선물 구매부터 포장일 까지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만 가는 모습이셨습니다.

“내 할 줄 아는 거라곤 달력 찍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 어찌겠어. 큰 아들 취직하면 그만 할 것이니. 내 걱정은 말어!”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취직을 하면 갑갑하게 들들 말려져 있던 달력들과 더 지긋지긋하던 선물터미에서 아버지가 벗어나실 수 있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또 동생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하면 그리고 또 제가 결혼을 하는 날까지라시며 혼자서 깨끗하게 달력공장을 지키셨습니다.

“큰 아들 이것 좀 봐라! 이게 무슨 일이어? 선물 보내지 말라고 우편물



같은 것이 왔네. 진짜 안보내도 되는 거? 그란다고 어찌 매해 보내던 선물을 안 보낼 수가 있남? 작은 것이라도 보내는 게 맞겠제?”

작년 설을 앞두고 아버지의 달려 공장으로 날아 온 우편물.
아버지는 반신반의 하는 표정으로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선물을 보내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회사에서 절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딱하니 써져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의심스런 눈빛으로

“정말이여? 정말? 그런데 수십 년씩이나 이어 온 케케묵은 관행이 이리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거? 내 참말로 믿을 수가 없네. 진짜 맞는 거여? 선물 안 보냈다가 그나마 얼마 안 남은 거래처도 끊기는 거 아니여?”

명백한 문서 한 장도 없이, 누군가의 명령 하나 없이도 삼십년이 넘도록 당신을 괴롭혀 왔던 관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아버지는 쉽사리 믿지 못하셨습니다.

TV를 인터넷을 뒤져가며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을 해 드린 뒤에야 아버지

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아버지는 감격하셨는지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말인가 보네. 참말! 매해 보내는 선물만 안 보내도 숨 좀 쉴 것 같았는디. 이제 증말 수십 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으네. 세상이 변하긴 변해가나 보다…….”

예의 상하는 것,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

성의 표시나 인사치레라는 허울 속에 포장 되어 있던 청탁은 액수나 대가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또 높은 곳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두를 병들이고 있던 수많은 청탁들.

피와 땀을 다 해도 하루살이조차 버거웠던 어느 소시민 가장에게조차 청탁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군가에게도 하소연 할 수 없는 비밀스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삶을 꾸준히 괴롭히고 있던 악행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변한 세상이었기에.

삼십년이 넘도록 설날에도 문을 닫지 못하던 아버지의 달력 공장은 첫 휴식을 허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낮은 기계도 작동을 멈추고 늙은 아버지도 일을 내려놓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2017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매해 아버지는 달력을 만들어 오고 계시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후에 만들어진 2017년의 달력은 아버지께 가장 특별한 의미의 달력으로 남았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해 진 세상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만드신 진정한 새 달력이었기 때문입니다. ♪